

삼성전자, 중국 3세대 휴대폰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3세대(3G) 휴대폰 시장을 겨냥해 휴대폰 업계 최대 라인업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30일 베이징 인근 만리장성 궈양관(居庸關)에서 '중국 3G 휴대폰 발표회'를 갖고 신제품 21종을 포함해 총 30여종의 중국 3G 휴대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회에서는 TD-SCDMA 방식의 폴더치폰 'S5630C', 윈도우 모바일 OS를 탑재한 CDMA2000 방식 폴더치폰 'i329' 등 신제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한 삼성전자의 3G 모바일 TV폰 '에메랄드폰(i6320C)', 3G 듀얼스탠바이폰 W709 등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TD-SCDMA, WCDMA, CDMA2000 등 중국의 3가지 3G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등 업계 최대 라인업으로 중국 3G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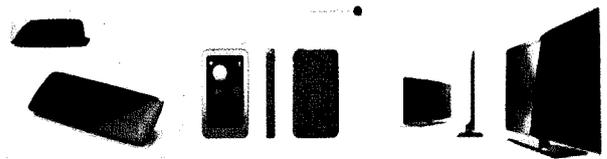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업계 최초로 TD-SCDMA를 기반으로 한 SGH-L288 휴대폰을 출시한 데 이어 6월에는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SGH-i688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 조직위에 L288을 공급하고 중국에서 3G 서비스를 하는 3개 사업자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국에 통신연구소를 설립, TD-SCDMA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특화 휴대폰과 현지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중국 3G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3G 서비스는 올해 6월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올해 1,200만대에서 2,000만대 규모인 3G 시장이 2013년에는 1억2,000만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억8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독자 표준인 TD-SCDMA 기반, 1억3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차이나유니콤은 WCDMA 기반, 370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차이나텔레콤은 CDMA2000 방식으로 3G 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500여 개의 도시에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DEA 2009서 역대 최대 수상



삼성전자가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와 비즈니스위크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09에서 역대 최대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IDEA 2009에서 LED TV 7000시리즈, 블루레이 플레이어(BD-P4600), 서로 다른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듀얼 쿡킹 오븐(BTS1)'의 3개 제품으로 금상을 수상했는데, 특히 LED TV 7000시리즈의 경우 전세계 각종 매체들의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해 초 'CES 혁신상'을 시작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러시아 '올해의 제품상(Product of The Year 2009)',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대상' 등 국내외 굵직한 상을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TV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LCD 모니터 '싱크마스터 P2370'와 컨셉 제품인 휴대용 소형 프린터 '스탬프 프린터'로 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나오토 후카사와가 디자인한 넷북 'N310'과 조약돌 MP3플레이어 'YP-S2', 컨셉 제품인 '소셜 캠페인 폰(Social Campaign Phone)'의 3개 제품으로 동상을 수상했는데, 이상의 8개 제품 수상은 단일 기업으로 올해 뿐 아니라 역대 최대 수상 기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IDEA 2009에서 LED TV 등 양산 제품과 휴대용 소형 프린터 '스탬프 프린터'와 '소셜 캠페인 폰(Social Campaign Phone)' 등 컨셉 제품에서 고루 수상해 삼성전자의 현재 디자인 뿐 아니라 미래 디자인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학생 부문에서도 삼성전자가 양성하는 디자인 인재들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삼성디자인학교(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이하 SADI) 학생들이 휴대용 지도 프로젝터 'Maptor'와 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물 속을 볼 수 있는 망원경 카메라 'Beriscope'의 2개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했으며, 뉴스를 아침마다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신개념 신문 'IN'과 연필이 내장돼 있어 거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줄자 'Oeasy', 화분 기능이 추가된 파티션 '숨쉬는 파티션(Breathing Partition)'의 3개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SADI는 작년 처음으로 은상 1점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총 5점을 수상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특히, 망원경 카메라 'Beriscope'는 iF 컨셉 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SADI는 2006년 레드닷 컨셉 어워드 1건 수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레드닷 컨셉 어워드(reddot concept awards) 18점, iF 컨셉 디자인 어워드(iF Concept Design Awards) 12점, IDEA 6점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36점을 누적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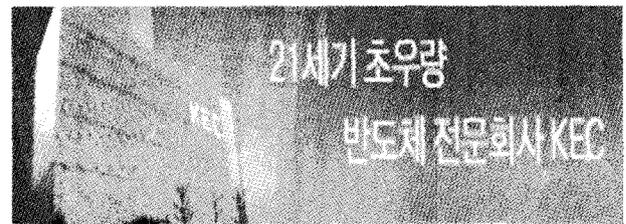
또한 삼성디자인멤버십(Samsung Design Membership) 소속 학생들이 재활용 건전지를 이용한 길거리 전등 'Energy Seed'로 금상,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명 스틱(Rescue Stick)', 시각장애 소아를 위한 교육용 플래시 카드 'Shot Card',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반쪽 짜리 물병 'Half Project'의 3개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했으며, 중국삼성디자인멤버십(Samsung Design Membership China) 소속 학생들이 입체 화소와 온도를 사용해 형태와 색감을 표현해 시각장애인들도 그림을 그리고 감상할 수 있는 'Touch Color'와 소리로 거리를 알려 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줄자 'Tikk-Tekk Rainbow'의 2개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총 6점을 대거 수상했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수상 성과에 대해 삼성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 윤부근 사장은 "디자인은 삼성전자 제품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며, "TV, 모니터, 컴퓨터, 휴대폰,

MP3플레이어, 프린터, 생활가전 등 전 부문의 제품에 걸쳐 고르게 수상작을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학생 부문의 성과에 대해 SADI 김수근 학장은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훈련을 강조한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교육을 통해 21세기 디자인 경쟁력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C, 가전·산업용 압력센서 시장 진출



KEC(대표:곽정소)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 가전, 산업분야의 압력센서 시장에 대하여 Full Line-up을 구축하고 Chip에서부터 Package까지의 Total Solution 제공의 이점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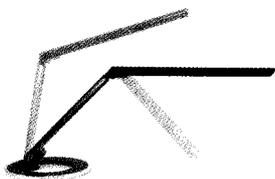
KEC는 1997년 '실리콘 재료를 이용한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초기술연구'를 시작한 이래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1999년 Bulk-MEMS 공정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압력센서의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2003년에는 50kPa급의 의료용 압력센서 개발, 2005년에는 초 미세 압력인 1kPa(대기압 1/100배)급의 HVAC용 압력센서의 개발, 그리고, 2008년에는 100kPa~1,000kPa급의 산업용 디지털 압력계용 압력센서, 5MPa급(대기압의 50배)의 시스템 에어컨 및 냉동기용 압력센서를 개발하여 의료, 가전, 산업 주요 압력센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저압/중압/고압의 Full Line-up을 갖추게 되었다.

KEC는 금번 Full Line-up구축에 따라 지난 2003년 의료기기시장분야 진입으로 시작한 센서사업을 2009년부터는 산업, 가전분야로 확장 진입하여, 2011년 1,000만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산업용 자동화기기 1위 업체인 A사에 납품 중에 있으며, 해외 1위 업체인 S사도 제품 인증 중에 있어 국내외 Big Maker로부터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또한, KEC는 신규 고부가가치의 시장 확대 공략을 위해 현재 국내 우수 기업들과 기계식 센서에서 전자식 센서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속적인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특화 모델 개발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향후 압력센서 관련 Total Solution 제공과 함께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S전선, 친환경 LED 조명사업 진출



LS전선(대표 구자열)은 그린 비즈니스 사업의 일환으로 LED 조명사업에 적극 진출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프리미엄급 LED 스탠드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가정 및 사무용 LED 조명, 유비쿼터스 가로등, 전광판 등 각종 LED 조명기기를 제조, 공급할 계획이다.

LS전선이 이번에 출시한 LED 스탠드(모델명 : LS-LED-100)는 전력 소모량이 백열등의 8분의 1, 형광등의 2분의 1에 불과한 고효율 제품이다. 또한 램프의 수명이 5만 시간에 달해 1일 평균 7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램프를 20여년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LS-LED-100은 형광등이나 백열등처럼 광원이 미세하게 꺼지고 켜지는 것을 반복할 때 생기는 파장이 없고, 눈부심 방지 패널을 채용하여 눈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또한, 조명의 색상이 집중력과 기억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과 독서, 휴식 등의 상황에 따라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김동영 LS전선 SBG사업부장(상무)은 “LS전선은 그린 비즈니스 사업의 일환으로 LED 응용사업을 2007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국내는 물론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LED 가로등에 와이파이(WiFi)와 CCTV 등을 채용한 유비쿼터스 가로등도 출시를 앞두고 홍익대학교와 공동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LS전선은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동해 케이블 공장에 LED 가로등 및 천장 조명등을 설치하여 연간 1천만원 가량의 램프 교체 비용 및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에 대학생 봉사단 파견



LS전선(대표 구자열)은 국제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와 12일간 인도 남부 타밀 나두(Tami Nadu)주 무두말라이(Mudhumalai) 지역에

대학생 봉사단 “마음 5기” 24명을 파견했다.

LS전선 마음 봉사단은 보카푸람(Bokapuram) 초등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체육 등 교육과 코끼리 등 야생동물을 막기 위한 담장 설치, 학교 시설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 8일에는 근교에 영화 관람 시설이 없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에서 인도 영화를 상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봉사 마지막 날에는 운동회를 개최하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태권무, 탈춤 공연, 사물놀이 등의 문화 교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LS전선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에게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 연 2회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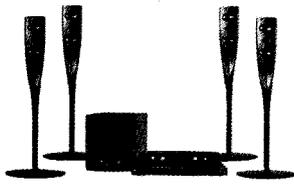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스포츠 전문 의류 및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LS네트웍스에서 봉사단의 의류와 가방, 모자 등을 후원하였다.

LG전자, ‘유럽영상음향협회 어워드’

4개 부문 수상

LG전자가 유럽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유럽영상음향협회(EISA) 어워드’ 4개 부문을 휩쓸었다.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LG전자는 ▲풀HD급 LCD



TV(SL8000) ▲블루레이 플레이어(BD390) ▲홈씨어터 시스템(HB954PB) ▲아레나 폰(LG-KM900)이 각 부문 최고상에 선정됐다.

'유럽영상음향협회(EISA) 어워드'는 유럽 19개국의 50개 AV전문지 편집장들이 참여해 선정하는 유럽 전자업계의 오스카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럽 최고 LCD TV에 선정된 풀HD급 LCD TV는 화면과 테두리가 마치 유리 한 장으로 덮여 있는 듯한 세련된 디자인과 잔상이 없고 선명한 화질, 간단한 조작으로 최적의 화질을 설정하는 화질 마법사 기능 등이 호평을 받았다.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인터넷으로 영화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BD-라이브 기능을 지원하고, PC,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안의 파일을 무선으로 공유하는 기능 등이 인정을 받았다.

CES 2009 혁신상을 수상했던 홈씨어터 제품은 LG전자의 첫 블루레이 홈씨어터 시스템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음질, 간편한 조작 등 고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럽 친환경 휴대폰 부문에 선정된 아레나폰은 3인치 대형 화면에 WVGA LCD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며, 돌비 모바일 기능을 적용해 영상과 음악 감상 시 홈씨어터 수준의 음향효과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닌 친환경 메탈 재질의 케이스를 사용하고, 염료를 사용하는 도금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

일본 풀터치폰 시장 공략 강화

LG전자가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Docomo)사를 통해 풀터치폰 2종(모델명: L-06A, L-04A)을 출시하며 일본 터치폰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일본 도코모에 위치한 LG전자 디자인센터가 직접 디자인한 첫 제품으로 현지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화려한 색상 및 재미있는 사용자환경(UI: User Interface)으로 개성이 강한 일본 젊은 세대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제품에는 '라이브 캐릭터 파크(Live Character

Park)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를 처음 적용했다. 6가지의 배경 테마를 20여종의 개성 있는 인간 및 동물 아이콘으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

'L-06A' 제품은 일본 시장 최초로 다운로드 시 7.2Mbps, 업로드 시 5.7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HSUPA(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 고속상향 패킷접속) 휴대폰이다.

터치스크린 하단과 숫자버튼이 있는 키패드 밑부분에 'G(구글)' 바로가기 버튼을 탑재했다. 한번의 클릭만으로 G메일, 뉴스, 지도, 검색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와 사진/동영상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유튜브(YouTube)'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독특한 풀터치 폴더 디자인을 적용, 상단부를 180도 회전시켜 풀터치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키패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일반 폴더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L-04A' 제품은 슬라이드 방식 풀터치폰으로 3인치 풀터치스크린과 함께 슬라이드를 올리면 숫자 키패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린 그림이 움직이는 '모션화가 기능', 국/영문 문자 메시지 지원 및 '원세그' TV시청 기능이 탑재돼 있고, 흰색, 노란색, 은색, 핑크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한편, LG전자는 일본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오이 유우(蒼井優)를 광고모델로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난해 대비 약 3배 늘어난 150만대의 휴대폰을 이 지역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일본법인 이규홍 부사장은 "이번 두 제품은 일본의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현지에 특화시킨 제품"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일본 휴대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